

經濟는 目的이 아니며 手段 이다

生活價値觀과 商品은 密接한 關係



柳 騎 榮

時 評 家

◇ 人間の 1次的 欲求.

우리 한국사람들은 너, 나 할 것없이 지난 60년
초부터 지금까지 25년동안을 男女老少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 그루가 되어 자나 깨나 經濟키우기
에 몸 바쳐왔다. 國政의 中心課題도 經濟에서 시작
되어 經濟로 날이 저물고 경제로 밤을 새웠다. 오
늘현재도 자나깨나 “經濟”다.

우리 한국사람은 오랜동안 가난에 시달려 왔다.
시달리다 못해 지치고 말았다. 때문에 한국사람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는 「나도 누구네처럼 잘 살아
보았으면」하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고 그것
이恨이며 유일한 꿈이었다.

日帝로부터 해방이 되어 自由를 찾았으나 한국
사람이 가진 것은 오직 가난 뿐이고 이 가난이, 주
어진 自由마저 빼앗아 갔다.

오랜 가난에 속박되어온 한국사람에게는 어느새
하나의 固定觀念이 생겼다. 「돈이 모든 問題를 해
결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所願을 풀 수 있다」는 생
각이 그것이다. 한국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하여 나무람할 개제는 못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歷史環境속에서 代代를 살아왔기 때
문이다.

1961년에 誕生한 제 三共和國은 「우리도 잘 살아
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政治슬로건을 내

걸고 經濟第一主義-工業立國-輸出立國-새마을運
動으로 하나도 경제 / 둘도 경제 / 경제, 경제로 달
렸다.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週當 勤勞時間이 50時間을 넘는 勤勞者는 우
리 한국사람 뿐이다.

덕분으로 우리는 우선은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에
서 벗어나는 段階에 이르렀다. 先進國의 문턱이 보
이는 곳에 이르고 있다.

덕분으로 우리는 가난 때문에 풀지 못했던 여려
가지 所願을 풀 수 있었고 풀어가고 있다. 더 풀수
도 있고 더 풀어야 하겠다. 國土統一도 우리의 經
濟力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다.

◇ 倉廩實則 知禮節

이렇게 經濟力 키우기에만 沒頭해 왔던 우리의
生活態도와 우리의 사고방식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제 1이다” 하는 생각을 더욱 굳혀갔다. 이러
한 생각은 가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問題도 따라
서 自動的으로 解決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이끌어 갔
다.

1950년대에 우리 한국사람은 곧잘 中國 春秋時代
의 齊나라 宰相이었던 管仲의 名言을 引用했다. 「倉
廩實則 知禮節 依食足則 相榮辱」. 이때 한국 사
람들은 禮節도 없고 염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을 뱉으며 가난에 그 책임을 덜어 써줬다. “無恒産이면 無恒心”이라는 孟子의 名言도 곧잘 입에 담았다. 經濟를 키워서 국민이 倉廩이 實하고 衣食이 足하여 잘 살게 되면 教育도 재대로 되고 廉恥도 알게 되어 좋은 世相이 될 것이라 믿었다.

당시 우리나라 GNP는 一人當 200달러가 되지 못했다. 黑白TV가 등장한 것이 1960년대 中盤이었고 아파트가 나타난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이며 마이카가 등장한 것도 70년도 高度成長期였다. 걸어서 다니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自家用이 보급되었다. 아파트는 점차 蔓延化하였다.

人間은 먹지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人間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存在이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그런대로 해결되면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했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했고 더 좋은 住宅에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잘 살게 되니 出世를 해야 했고 名譽도 가져야 했다. 더 많은 財物을 가지기 위해서는 出世하고, 名譽를 가지기 위해서는 “知禮節” “相榮辱”이 아니라 여우나 호랑이 보다도 더 무섭고 사나운 非人間的 行爲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큰 財物, 더 큰 出世, 더 큰 名譽를 貪하게 되고 人間이 마땅히 가져야 할 人間다운을 저버리는 反面에 動物의인 貧慾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난 하게 살 때는 想像도 하지 못했던 人間의 醜惡相만이 露로되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經濟적으로 잘 살게되어 우리가 “잘살게” 된 것은 무엇인가. 衣食住에 대하여 걱정을 면하게 된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람의 욕망에는 여러 段階가 있다고 한다. 이慾求是 生活의 價値觀과 直結된다. 1次慾求是 곧 生存慾求이다. 즉 의식주가 그것이다. 이 1次慾求인 生存에 필요한 物質의 充實내지 充足, 豐饒등에 生活價値觀이 두어진다.

1次慾求가 충족되면 2次慾求로 옮겨지고 生活價値觀도 달라지는 법이다. 價値觀이 달라지면 商品도 이에따라 變化하는 것은 당연하다. 誘示慾인 것 같다. 마치 남을 위해서 잘 사는 꼴이다. 여기서 남을 위해서라는 말은 極端한 個人主義의 다른 表現이며 결코 博愛主義가 아니다. 他人指向的 生活價値觀, 즉 他人보다 내가 더 잘 산다는 誘示慾이다.

남에게 誘示하기 위하여 더 좋은 飲食을 먹고 더 좋은 의복을 입고 더 좋은 주택에 살고 自家用 물고 出世하고 名譽를 가지고... 生活價値觀이 誘示에 두어진다. 이 段階에서 出世를 象徵하는 지위가 商品化되고 名譽가 이를테면 博士라는 學位가 商品化되어 한때 가짜博士가 社會에 物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他人指向的 價値觀의 욕구가 어느 정도 飽和期에 이르면 제 3차 욕구가 고개를 든다. 즐겨보자는 慾望이 그것이다. 레저産業은 여기서 생겨난다. 스포츠가 붐을 이루는 現象도 그 一端이다. 한때 서울이나 큰 都市에 享樂産業이라는 처음 듣는 産業이 생겨나서 社會의 指彈을 받았다. 지금은 看板을 바꾸어 地下에서 營業한다고 한다. 日本우동 한그릇에 1萬원이 넘어도 먹는 사람은 먹고 있다. 숨어서라도 먹는다. 生活價値觀이 즐기는데 두어진다 그래서 각종 레저商品이 人氣를 끌고 각종 레저施設이 재미를 보게 된다.

다음은 4차욕구라 한다. 4次慾求是 自己實現에 生活價値觀이 두어진다. 眞·善·美를 찾게되고 創造慾을 갖게된다. 넓은 意味의 文化的 慾求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生活樣相이 個性化되고 多樣化된다. 家族마다 제각기의 個性的인 生活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尊重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商品도 個性있는 製品이 尊重되고 多樣化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多元化라 할 수 있다.

◇ 一部の “醜惡한 生活”

經濟가 成長하고 발전하여 모두가 잘 살게 되면 못살던 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경제는 하나의 問題를 解決하면 두가지 새 문제를 낳고 있다. 더 많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를 續出시키고 있다. 더 잘 살게되자 禮節과 廉恥는 가난했을 때 보다 더 없어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있었던 범죄는 더 늘어 나고 있다. 돈이 없어서 進學을 못했던 때와는 달리 돈이 많은데도 進學을 못하는 學生이 더 많아진다. 요즘 問題化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 또는 經濟事犯은 결코 衣食의 不足에서 저질러지는 악덕이 아니다. 해마다 孝子孝婦에 대한 表彰이 있으나 物質的으로 充足된 家産에서 나왔다는 예는 없고 幻化생활하는

집의 사람일수록 禮節과 廉恥를 모르는 것 같다.
敬老精神은 가난한 마을에 가야 볼 수가 있다. 생
각할 문제이다.

◇ 經濟는 萬能이 아니다

왜 우리는 경제를 키워놓고 醜惡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文化와 더불어 經濟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한국사람은 傳統的으로 美風良俗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이 經濟와 더불어 保存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經濟 萬能主義에 사로잡혀 있으나 經濟의 힘으로 解決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고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快適하게 살고자한다. 그것을 돈에서만 얻고자 한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은 그처럼 단순하고 一元의인 것이 아니다. 매우 多元的이고 복합적인 內容을 갖는다. 지금 우리 韓國의 “보통사람”의 生活價値觀은 무엇인가. 一切의 가치관을 經濟論理로서만 判斷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제는 萬能이 아니다. 經濟는 目的이 아니며 手段인 것이다. 우리의 「醜惡스러운 生活」은 이것을 克服하므로써만이 可能한 것이다.

끝으로 本論을 생각해 보자. 매우 完만하기는 하지만 우리 생활에도 점차 이같은 경향에서 脫皮하려는 生活價値觀의 變化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自身의 生活을 探究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自己完成을 指向하는 生活態度가 그것이다. 그것은 文化生活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이야 무엇을 하든 내 生活을 갖자는 자세이다. 최근에 보

이는 大企業들의 文化事業에 대한 投資며 參與, 文化行事등도 그 一面이라 볼 수 있다. 제 四次 慾求이다. 成熟社會의 初段階의 조짐이라 할 수 있다.

生活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消費패턴도 變化를 가져오는 것은 當然하다. 同一한 商品이 大量으로 소비되는 大量生産時代는 빛을 잃어갈 수 밖에 없다. 生活에서 個性이 尊重되는 時代에는 消費도 個性化하여 個性商品이 인기를 끌게 된다. 이것은 곧 商品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4次慾求是 創造慾求니 커뮤니티慾求등으로 代表된다. 무엇인가를 創造하고 싶고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이를테면 文化세미나가 盛行되고 독서가 번지며 취미생활이 늘어난다. 글짓기, 書藝, 木彫刻, 그림그리기 여기에 따라서 레저産業이 고개를 든다. 한편 地域社會의 움직임이 活潑해진다. 地域社會의 團體, 모임이 많이 생겨난다. 自己充足, 自己完成의 指向이다. 요즘 中小企業界에서 創業이라 하여 企小業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인가 自己充足을 이루어보자는 創造慾求의 表現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소비는 個性化되고 多樣化한다. 이러한 商品은 大企業의 이른바 裝置産業시스템에서는 생산이 어렵다. 个性的 商品은 多品種 少量生産일 수 밖에 없고 中小企業의 分野다. 成熟된 消費패턴, 즉 先進國에서 中小企業이 늘어나고 大企業보다 技術開發이 활발하며 벤처비즈니스가 人氣를 끄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生活價値觀과 商品市場은 이러한 의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中小企業이 이러한 패턴에 호응하는 時代가 열릴 것이다. *

